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죽었다가 다시
산 소녀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Alastair Paterso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0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야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 을 가르치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겨우 12살인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큰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요.



야이로는 오직 한 사람만이 그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알
았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딸이 죽기 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요.





야이로는 무리에
싸여 있는 예수
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 어
요. "내 어린 딸
이 죽게 되었어
요.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떠나셨지만 큰 무리로 인하여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효험이 있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만나봤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돈을 다 쓰고 말았어요. 그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병이 그 순간에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자신이 놀랍게 회복된 것을 깨닫고 있던 찰라에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하고 물으셨어요. 이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은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 자신에게 묻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드렸지요.



바로 그 때, 야이로의 하인들이 정말 슬픈 표정을 하며 야이로에게 말했어요.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 여인이 중간에서 자연시키지만
않았더라면 --- .
야이로의 소중한 딸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말고 믿기만 하여라. 너의 딸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이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내어 보내신 후에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딸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곳에는 야이로와 그의 부인과 예수님의 세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럼, 죽은 이 소녀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래요. 이 소녀도
주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녀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즉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서
이 죽은
소녀를
살리셨지요.



이 소녀의 부모님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죽은 소녀를 살리셨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소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